

이 상 상 황 보 고 서

보 고 자 :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

주관
이그니스 마법사 포럼

보 고 사 황	관찰 대상	양들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lambs	길이	141cm
	행동 양상	추적, 요구, 교섭, 성장, 변이	너비	11세 소년의 체격 정도
	관찰 장소	포럼 연구실 002-005 구역, 80호실	무게	34kg
	발현 일시	□□□□년, 2월 5일	특이사항	아래 서술
	이상 상황	소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졌다. 어떤 마법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어떤 마법사가 어린아이를 만들어내고 유기하겠는가. 그것도, 포럼을 진행하는 기관의 앞에 말이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남색의 머리칼, 뺨의 점. 아이는 거대한 공포를 가진 채로 눈을 깜빡였다. (그것을 공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까닭은, 아이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하는 것을 줄 테니 자신을 돌봐달라는 말과 함께였다. 그리하여 이 인격체에는 침묵하는 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는 관찰 대상이 되었다. 아이를 관찰하는 일을 떠맡게 된 것은 아무런 유감도 없었다. 적어도, 만날 때까지는 그러하였다.		
1일 차		동화책을 읽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만난 이후 처음으로 뺨은 완전한 문장이기도 했다. 타 연구원의 동행 없이 홀로 '침묵'과 교섭하기 시작한 탓인지, 요구는 간결하고 짧았다. 책을 읽어주면 즐겁게 놀아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처음으로 읽은 동화는 '미운 아기 오리'였는데, 원본의 내용을 변형해 같은 이야기 구조를 유지한 채 결말만 바꾸었을 때, '침묵'은 즉시 변화를 감지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인해, 피부에 가벼운 저온 화상을 입었다. 위협이 되리라 생각하고 관찰 중단을 요청하였다. 받아들여지면 기록은 1일 차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3일 차		침묵은 오늘 즐거운 놀이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침묵은 완강했다. 영원을 약속하고 싶다고 했다. 어딘가에서 결혼식 영상을 본 듯했다. 사회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였다. 그는 폐기되지 않았다. 손을 잡는 감촉이 있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서늘한 감각이 스며들며 신경이 저렸다. 그것은 꼭 천천히 살을 비집고 들어가는 벌레 같았다. 혈관을 타고 오르듯, 천천히 손가락뼈를 감싸며 내 살을 뜯어내고 있었다. 촉감은 마치 뿌리를 내리는 덩굴 같았다. 작은 가시가 살 속을 더듬으며 아래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고통을 호소하자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침묵은 나를 끌어안았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되는 저린 감촉이 점차 머리를 잠식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눈을 뜬 채로 눈물을 흘리는 일을, 침묵은 안쓰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화상자국과 찢어진 손가락에 무겁고 뜨거운 감촉이 흐느끼듯 스쳐 갔다. 관측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몸을 뺐으나, 팽창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말았다. 그것은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7일 차		회복하고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7일 차였다. 나는 그의 관찰 업무에서 완벽히 배제되었으나 그를 만나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다며 줄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를 가득 채워 나를 끌어안았다. 공간에 부유하는 모든 공기가 그를 견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만 푹 떨어져 녹아내리는 기분을 받았다. 나는 이것이 실혈의 감촉임을 알고 있었다. 몸을 떼어낼 수 없었다. 비상벨이 울렸다. 그는 잠금되고 말 것이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나가 되자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연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를 만나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11일 차		외로움에 허덕이는 어린 존재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를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감각. 그는 나를 보며 행복해했고, 그 웃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서 계속하여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뺨어내고, 안기는 것이 연구의 일환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다.		
□□일차		침묵은 아이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그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자꾸만 그 눈 속으로 빠져들고 싶어진다. 그 안에 내가 있다. 흐릿한 형상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것은 분명 나다. 처음에는 공포였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감각, 나를 나라고 부르며 동시에 나를 침식하는 그것. 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녹여가는 감각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 몸을 맡긴 것만 같다. 파도가 밀려와 나를 삼키고, 다시 토해낸다. 이것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고통이 나의 입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착각이 아닐 터였다. 이제 그만 써. 잘 자.		

크레이튼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80호실에 가는 것을 꺼렸다. 아이는 홀연히 사라졌다. 연구원들이 가져온 모든 장난감을 거부하고서 인간을 가지고 논 것이었다. 내부는 처참했다. 그의 것으로 보이는 안구(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오염된 정도가 심각했다)와 손가락뼈 등이 군데군데에서 발견되었다. 주문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실험체에는 필시 있었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그가 죽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제출하였던 관찰 중단 요청서를 유품 삼아 애도를 거듭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일지도 몰랐다. 신원미상의 필체를 추적하여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 상 상 황 보 고 서

보 고 자 : 네인 레글랜

주관
네블라 군사 편찬위원회

보고사항	관찰 대상	복음의 집 Evangelarium	크기	가로 1.80m, 세로 1.80m (180cm)
	행동 양상	보육, 대화, 생활, 변이, 파괴	너비	1,80m (180cm)
	관찰 장소	M4 모터웨이 히스로 공항 근처	무게	1650kg (16.5kg)
	발현 일시	□□□□년, 9월 1일	특이사항	항상 같은 온도를 스스로 유지한다
	보고 상황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어 마법의 기현상으로 판단된 '집'은 따뜻한 색감의 안락한 주거 공간으로 나타나며, 공간 내부는 대상과 접촉하는 인물의 심리적 안정성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된다. 물리적 경계하고 있으나, 내부에서 지각되는 크기는 주관적이며 개별적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을 보유한 존재로 확인되었으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본적으로 친절하며, 대상을 환대하는 태도를 유지하지만, 특정 개체에 대한 소유욕 및 보호 본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정 대상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정 시간 이상 외부로 이탈하면 공격적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보고됨.		
1일 차	타인의 방문을 인지한 즉시 내부 구조를 변화시켜 방문 인의 주거 환경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함. 만일, '집'의 호의를 거절할 경우, '집'은 반응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자 요청과 무관하게 방문자가 선호할 만한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하는 행동을 보임. 외부로 나가려 하자 '집'은 별다른 물리적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나, 방문자가 한 번 떠난 후 공간 내부에서 미세한 구조 변화가 감지됨.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재입장했을 때 실험체 내부 구조는 신체 조건과 완벽하게 맞춰진 맞춤형 공간으로 변화해 있었음.			
3일 차	집의 인지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자극을 주었고, 음성과 신체접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하지만 집은 그저 아무런 음성 없이 고요하기만 하였음.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무관심이라 생각하였으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됨. 실험 도중 실수로 작은 유리 조각에 손을 다치게 되자 (경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에 놓인 화분을 옮기던 도중이었다) 집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함인지 아주 빠른 속도로 처치를 시작함. 벽면에서 의료도구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때 처음으로 집의 음성을 듣게 됨. 동년배의 남성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을 보아, 이 집은 인격체임이 확실해짐.			
5일 차	실험실 온도가 예정보다 낮아졌다. 기기 오류일 가능성이 컸지만, 음성 (안내 방송의 느낌으로 흘러나왔으나, 어쩐지 몸 안을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다)이 들려옴과 동시에 담요 한 장이 떨어짐.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담요를 받자, 확실하고 집요한 시선이 느껴짐. 그것은 갈수록 깊이 나를 응시하게 됨. 눈빛에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듯한 욕망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음. 이것은 단순한 실험체의 반응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됨. 집은 인간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음. 공간을 떠나기 전까지 대상의 시선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느낌.			
7일 차	대상은 점점 더 나와의 상호작용을 늘려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게 되었다. 아침에 실험실에 들어설 때면, 대상이 나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오늘, 나는 실험실 한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압박감을 느꼈다. 벽과 바닥이 부드럽게 휘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벽에서 손이 자라났다. 다음 순간, 차가운 감촉이 두피를 가르고 들어왔다. 피부가 찢어지는 감각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존재했던 틈이 열린 것처럼, 손가락이 조용히 내 머리뼈를 열어젖혔다.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고통은 없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보았다. 바닥에서 길게 뻗어 나온 실루엣이 있었다. 그것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차갑고도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꿈틀거렸다. 뱀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11일 차	그것은 외로웠다. 외로웠기에 뱀의 집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음은 부정할 겨를이 없었다. 이것은 본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 어쩌면 고문실로 쓰였을지도 모른다 - 위원회에 온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뱀은 인간을 한입에 삼킬 수 있다고들 한다. 그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존재했고, 나를 바라보며 존재했으며, 나를 위해 존재했다. 10일 차가 되던 날 그것을 폐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아 나는 괴로워졌다. 그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뱀의 동지에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그 사실을……. 울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성인 남성을 씹어 녹여 삼키는 데에 11일이면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항이 없다는 사실은 아주 주목할만한 경과였다. 녹아 없어지기 직전의 시험 대상에는 한 줌 정도의 존재로 남아돌아 왔다. ‘집’의 규모는 여전했다. 뱀에는 치아가 없고, 집에는 손상이 없었다.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것은 행복하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지복 속에서 죽어간 것이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위원회는 네인을 제명하였다. 그를 그대로 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었다. 진정성 있게 작성한 7일 차와 11일 차의 항목은 좀 더 깊이 분석될 필요가 있었다. 그 전까지의 그는 집에 애착을 느끼지 않았지만, 애착을 느낀 이후부터의 감정은 절실했다. 어쩌면 작성하는 사람이 바뀌었는지도 모를 일이다.